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3배 더 이용

- 올해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1,474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다.

* 유연근무 수혜 현황(육아기/전체): '24년 516명/5,535명 → '25년 상반기 1,474명/5,403명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년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25년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주요 개편사항>

구분	'24년	'25년
육아기 자녀 나이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선택근무	최대 월 40만원, 1년 480만원	최대 월 60만원, 1년 720만원
재택·원격근무	최대 월 40만원, 1년 480만원 (월 6회 이상 활용)	최대 월 60만원, 1년 720만원 (월 4회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	최대 월 20만원, 1년 240만원	최대 월 40만원, 1년 480만원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에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교육서비스 기업에서 일하는 ㄱ씨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4살 아이의 등·하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어 안심되고,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졌어요”

화장품제조업에 근무하는 ㄴ씨도 시차출퇴근을 활용해 일찍 출근하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이 기업은 시차출퇴근 도입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채용공고에 시차출퇴근을 명시한 후 입사지원자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 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김상엽	044-202-7497



연번	업종 (소재지)	주요 내용	정부 지원제도
1	교육 서비스업 (서울 강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모든 직원이 제한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고객사 미팅 등에는 자율적으로 출근하여 근무.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월 1:1 미팅, 반기별 동료 및 상사의 평가와 피드백 등으로 객관적 성과 측정 •(성과) 만족도 조사에서 재택근무와 조직문화에 높은 점수 기록 •(노동자 경험)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조부모의 도움 없이 어린이집 등하원이 가능함. 출퇴근시 소모되는 에너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서 업무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짐 	유연근무 장려금 + 일·생활균형 인프라
2	화장품 제조업 (서울 금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연구직, 영업직 등 모든 직군의 약 75%가 시차출퇴근으로 07:30~18:30 사이에 8시간을 선택적으로 근무 •(성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생활패턴과 업무 특성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증진시킴. 채용 공고에 시차출퇴근 명시 후 구직자 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고용 효과 발생 •(노동자 경험) 일찍 출근하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 이상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음 	유연근무 장려금
3	연구개발업 (경북 포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파일 공유 및 실시간 소통 시스템 등 다양한 협업툴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시행. 대면 소통 기회와 회식비를 제공하는 등 재택근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성과)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업무 체계 확립 •(인사담당자 경험)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인 재택근무를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적의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장려금을 활용하고 있음 	유연근무 장려금
4	운송 관련 서비스업 (경기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전화 상담 직원의 경우 자택에서 인사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과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활발하게 재택근무 활용 •(성과) 육아문제 해결로 우수인력이탈 방지 및 직장 만족도 증가, 여가시간 증가로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인사담당자 경험)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가 쉬워졌으며, 유연근무를 앞으로도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생활균형 인프라



2025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

유연근무
노하우가
부족할 때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직무분석 등 통해 최적 유연근무 설계 등 기업 내 제도화 지원

※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http://kwpi.or.kr>)



출퇴근이나
보안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때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 정보보안시스템** 등 투자비 50~70% (최대 2천만원)



초기 관리
부담이
있을 때

유연근무 장려금

- 근로자에게 유연근무 허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개별 근로자의 **노정근로시간** 단축시 (1년간 최대 6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 단축시 (1년간 최대 36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